

사 설

막사이사이상 수상 의미

올해 막사이사이상 '평화 및 국제 이해 부문'에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법륜 스님의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교 본연의 자세와 구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선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남북화해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 모든 민간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법륜 스님은 '조건 없는 베풀'이라는 불교의 덕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종교와의 연대를 원만히 이루어냈다.

둘째, 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과 '거리 두기'가 필수적임을 보여 주었다. 법륜 스님이 중추적 역할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한 96년은 '햇볕 정책'과 같은 발상이 어려운 때였다. 사회적 분위기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지 않

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일시에 바꿔놓을 듯한 거창한 구호나 '주의'를 수 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한 때의 진실이었거나 현실적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허상이었음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 했다.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권력이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그 본연의 구실을 다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의미다.

셋째, 스님이든 목사든 신부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가가 아니라 '수행(성직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륜 스님은 '자신의 평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상을 사양하려 했다고 한다. 또 '슬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종교의 종교다운은, 수행(성직자)의 수행(성직자)다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참으로 스님다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경승제도 활성화 하자

현대는 다원종교시대다. 많은 종교들이 교리와 교세를 자랑한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종교 스스로 대중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불교가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무관심하거나 관성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 최근 경승단이 200여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승 활동현황 조사다.

70여 경찰서에서 파악된 내용만 보더라도 경승의 임명과 활동이 얼마나 비조직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예 경승조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회도 열지 않는, 이름뿐인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략 10% 정도가 명목은 유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계산이라면 전국적으로 경찰불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60~70여 곳 역시 경승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으리라 볼 수 있다. 총격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경승단과 조계종 포교원은 차체에 철저한 현황조사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교구본사와 협력해 전국경찰서에서 경승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경승은, 경목이 독점한 것을 싸우면서 얻은 제도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종단 전체의 수치다. 출가의 목적이 전법과 증생제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수행관 미입방자 구축계 수계자격 박탈

조계종 교육원 예비승 교육·계율 강화

강원 학년별 평가제 도입 추진

조계종 교육원이 예비승(사미사미니) 교육 및 계율 강화에 나섰다.

교육원(원장 무비)은 7월29일 제57차 교육원 회의와 전국 강원 학년별 평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중대기초교육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원이 이같은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올해 들어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승들의 면학풍토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예비승 간에 폭력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수행관 입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예비승들의 수행관 미입방률이 각각 34%와 21%에 이르는 등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우선 내년

부터 수행관 미입방 예승들에 대해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및 구축계 수계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수행관 청규를 제·개정키로 했다. 또 계율에 바탕을 둔 학업이 불가능한 일반대학 출신 출가자의 동국대 편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9월말까지 실시되는 '사미(나)의제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예비승에 대해서는 비구계 수계자격을 1년간 유보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학년별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선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지금까지 재학 중인 30인 이상 강원에서만 실시해오던 '명사초청 순회특강'을 학원 20인 이상 강원으로 낮췄으며, 오는 10월2~4일 직지사에서 열기로 한 '강사·중강 연수회'도 교육원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축계를 수지한 자'로 돼 있는 강원 부교수(중강)의 자격요건을 전문교육기관(학림, 불교대학원, 율원을 졸업한 자)로 변경하는 등 교육자 자격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a.com

포교사 전문연수

포교원, 영천 은해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포교사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형년, 경찰, 직장직능, 신학단체, 지역, 환경분야에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각 분야 포교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포교법을 습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천태종 하안거 결제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제83회 하안거 기도를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달간 총부산 구인사에서 봉행한다.

3일 밤 10시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결제식을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하안거에는 5만여 천태종 신도가 동참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주5일제' 대비 사찰운영법 모색

불교아카데미, 경영자 워크숍·가족프로그램 안내자과정 개최

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프로그램 및 수행프로그램과 사찰 전략 등 새로운 사찰운영 방법 마련에 나섰다.

불교아카데미(원장 임동주)는 '주5일제 대비 경영자워크숍'과 '가족프로그램 전문 안내자 양성 과정' 등을 개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찰 주지 및 수행단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17일 북악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주5일제 대비 경영자 워크숍'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가져올 여가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영리 비영리단체의 주5일 근무제 대비동향 △마인드 맵 워크숍을 활용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전략 △우리아사찰의 주5일 근무 대비 전략수립과 실행

등에 대해 김정원 명지대 여가정보학과 교수, 임동주 정선문화연구원 관수출판국장, 정용기 불교아카데미 사무국장 등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9~11일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드림텔에서 열리는 '가족프로그램 전문안내자 양성과정'에서는 △주5일 근무제 대비 사찰의 전략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기술 △가족친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환경경쟁태프 프로그램 진행 기술 등에 대해 김남진 참교육연구소장, 조용현 원광대 교수,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회장, 이상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국장이 강의한다.

불교아카데미 임동주 원장은 "최근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주일 예배를 금요일 예배로 전환하고 전일교회와 카페교회 등을 만들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강화를 통해 종교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102745-7799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looking at a modern building with a sign that says 'Buddhism'.

교화직 대상자 15주 교육

진각종 총금강회, 10월3일 6개교구서 동시 체육대회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은 예비교화직의 수행과 교화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화발령 대상자 교육을 7월 29일부터 시작, 11월 10일까지 15주 동안 서울 총인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화대상자 교육은 매일 새벽 계명정진과 함께 △진각교전 연구 △실법안 발표 △사경 △염송법(염송)의 의미, 자세 등 △스피치교육 △심인당 관리법 △불사지

전체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7월26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신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3일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대전, 포항, 경주 등 6개 교구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12일 원로회의 개최

5일 봉원사서 임시총회...종단발전책 논의

태고종 제85회 임시총회(총무원장 윤곡)가 5일 오전 11시부터 이틀간의 회기 일정으로 신촌 봉원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증법 제 개정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각급 기관장 인준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운산 총

무원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태고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개혁발사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종단발전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고종은 상원격인 원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12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경숙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Contact information for Buddhist News and other services.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Advertisement for 'Kwon Eun-jeo'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by Gyeongbong Kwon. Includes a photo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a portrait of Gyeongbong Kwon.

Advertisement for 'Jal Doeun Jip-an'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by Gyeongbong Kwon. Includes a photo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a portrait of Gyeongbong Kwon.